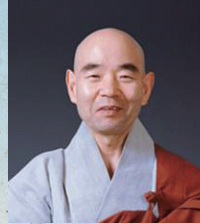


제31회 백고좌법회 보살계 및 불명 수계법회

지난 2월 25일 입재한 제31회 백고좌법회 회향을 맞이하여 그동안 법회에 동참하신 불자들을 대상으로 보살계 및 불명 수계법회를 봉행합니다. 불명은 오계를 수계한 불자라면 누구나 수지해야 하는 법명이며, 보살계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48대 서원을 세운 대승 보살이라면 누구나 수지해야 하는 계입니다. 이번 수계법회는 전 해인사 올원장 종진스님께서 집전하실 예정이오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 일시 : 2016년 6월 3일(오전 11시)
- ◆ 장소 : 종합복지관 4층 대적광전
- ◆ 법회 : 종진 큰스님(조계종 전계대화상)



제31회 백고좌법회 영가천도 49재 막재

지난 4월 15일 입재한 제31회 백고좌법회 영가천도 49재 막재가 오는 6월 2일 법왕사 종합복지관 4층 대적광전에서 열립니다. 법회기간 중 선망부모, 조상, 수자령 영가에 대해 49재를 올리신 모든 불자들은 이날 막재에 동참하시어 극락왕생을 기원하시기 바랍니다.

- ◆ 일 시 : 2016년 6월 2일(오전 11시)
- ◆ 장 소 : 종합복지관 4층 대적광전 및 광장
- ◆ 준비물 : 속옷 - 런닝, 팬티, 양말, 기타
겂옷, 신발(짚신) - 사중에 준비
세면도구 - 비누, 치약, 칫솔, 수건, 대야
공양미 - 3되3홉 또는 15,000원
수자령 - 분유, 배냇저고리, 과자, 유아복, 장난감 등



대한불교
조 계 종

법 왕 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



해오름요양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T. (053)766-5767 F. (053)766-5095
www.silver79.kr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2016. 6 | Vol. 263호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대한불교
조 계 종 법 왕 사



한결 같은 마음

해오름요양원



Contents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Vol. 26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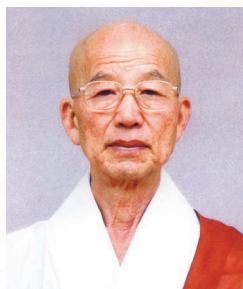
- 04 깨침의 향기
충실하게 살고 즐겁게 죽자 · 원공당 정무 대종사
- 06 비슬산방
인공지능 시대에 다시금 종교를 생각한다(3) · 실상 주지스님
- 08 법왕논단
보편적 진리는 평범함에서 나온다 · 본원스님
- 12 기획특집
의문 경지 끝에서 '생명력' 처방받다
- 16 부처님 이야기 | 초기 원형불교 자료에 근거(16)
수메다 부처님 이야기 · 영일스님
- 20 편액과 주련
동화사의 영산전과 천태각 · 전일주
- 22 기획특집2
중국 오대산과 문수신앙 · 정엄스님
- 24 특집 | 화보
부처님오신날 / 법왕사 경로잔치
- 27 법왕사소식
- 29 법왕사게시판
- 34 해오름소식
- 35 해오름게시판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 등록일_2012년 9월 14일 | 등록번호_대구, 라 07721 | 발행처_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www.bubwangsa.or.kr | 발행일_불기 2560(서기 2016)년 06월 01일 발행 | 통권 263호 | 종무소_T (053)766-3747·9088 F. (053)767-6095 | 발행 겸 편집인_실상스님(권오범) | 인쇄인_강영도 | 편집위원장_원인스님 | 편집위원_모도, 영일, 상철, 자행, 자윤, 강선옥 | 기획·제작·디자인_다산미디어 (053)424-3322

법왕지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매달 불제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더욱 알차고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충실하게 살고 즐겁게 죽자

원공당 정무 대종사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치매환자가 늘어가는 데 문화생활, 가공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 신경 비타민은 B군 B1, B2, B6, B12입니다. 신경 영양제가 많이 들어있는 비타민 B군은 곡물의 눈, 씨앗에 많이 들어 있는데, 곡식을 도정할 때 다 빠져나가 비타민이 없는 음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 사람 가운데 치매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알겠지요? 현미, 통밀을 꼭 먹어야 합니다.

치매는 어떠한 과학과 어떠한 의학도 못하고치는 불치병입니다. 가족의 사랑과 이해 뿐입니다.

80이 되어서도 철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철이 안 난다는 것은 졸업준비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것은 보살 공부, 마음 공부를 배우려고 사바세계에 입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성적이 좋아야 졸업하는 겁니다. 성적이 나쁘면 재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갈 때 어떻게 가야 하는가? 미국 사람 '스코트 니어링' 처럼 가야 합니다. 그는 반전운동을 하다가 교수직에서 파면 당하자, “옳다. 참 잘됐다. 시골로 들어가 농사짓자” 며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부인이 말을 안 들으면 못 갔을 텐데, 그 부인 헬렌 니어링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1883년 출생해서 1983년까지 꼭 100년을 살



있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나는 평생 충실히 살았다. 즐겁게 가노라” 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윤구병 교수라고 변산반도에 서 농사짓고 사는 분이 있는데, 그 양반도 그렇게 거룩하게 갈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사바세계에서 졸업 논문을 뭐라고 쓰고 잘 죽을 것이냐? 유언장이 졸업 논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80세에 반열반에 드시려 할 때, 제자들이 슬퍼하며 흐느끼니 “제행은 무상이다. 열반이 최고라고 했는데, 지금 뭐하는 거냐? 그렇게 공부를 49년이나 시켰는데” 라고 나무랐습니다.

예수께서는 “주여, 주여, 나를 버리시나йка?” 하고 갔다는데, 너무 젊어서 가니까 좀 한이 있는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받으니까 제자들이 아우성이자 “방해하지 마라. 내가 이 날을 기다렸다. 죽음에 무엇이든 관철할 수 있도록 방해하지 마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졸업논문은 어떻게 써야 할까? 그 모범답안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티베트 속담에 ‘내일이 먼저 올지, 내생이 먼저 올지 누가 아느냐’ 라는 말이 있습니다. 팔십 구십 되어도 철이 안 납니다. 가족이 다 죽어도 자기는 아닌 줄로 여기는 것이 인간이에요. 자기 발등에 딱 떨어져서야 철 나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충실히 사는 것이냐, 항

상 오늘뿐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충실하면 되는데 칠십, 팔십, 구십 전부 미루다가 막바지에 가서 그러는 겁니다. 또 빈 주머니 차고 갈텐데 그걸 몰라요. 주제가 노후 문제인데 이게 인생 문제지 노후 문제만은 아닙니다. 인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신문지상에서 떠드는 것처럼 돈을 모아라, 건강해라’ 다 쓸데 없는 소리입니다. 제 욕심만 차린 사람은 다 한을 머금고 갑니다. 돈도 잘 쓰십시오. 결코 남을 의심하지 말고 원만하게 덕을 쌓으면서 사세요. 덕은 외롭지 않습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 수십 년 전보다는 돈이 많아요. 어디에 쓸까 궁리할 정도로 돈이 많아진 겁니다. 싹수 있는 데가 있으면 쓸텐데 싹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은 거름을 줄 때 싹수 있는 데다 주지 아무 데나 주지 않습니다. 싹수 있는 사람이 보이면 꼭 싹을 잘 기르고 덕도 쌓으십시오.

어쨌든 그때그때 보람을 가지고 현실을 충실히 살면 됩니다. 그러면 내일 죽어도 좋고 모래 죽어도 한이 없이 앉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보현보살 열 가지 행원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원공당 정무대종사 열반 3주기 추모 범어집 『인생졸업장』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다시금 종교를 생각한다(3)

실상스님 / 법왕사 주지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은 첫째,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인공지능이 도리어 인간을 지배하며 더 나아가 인간을 파멸시킬 수도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와 둘째,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 대부분을 빼앗아가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은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평가되어서 것처럼 심각한 걱정은 하지 않았지만 인공지능의 발전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조만간 당면 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며칠 전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 인공지능 변호사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름이 '로스(ROSS)'로 정식 변호사로 등록해 파산 사건을 맡는다고 합니다. 로스는 구글의 알파고가 바둑에 특화됐던 것처럼 법률 서비스에 최적화된 AI로봇입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인간의 직업을 대체하는 연구와 결과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인공지능과 로봇의 인

간 대체가 이미 시작됐으며 앞으로는 더욱 가속될 것이라는 비관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30년 동안 기계는 인류의 절반 이상을 실질 상태로 만들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올해 3월 우리나라 주요 직업 400여개를 분석한 결과, 단순 반복적이고 정교함이 떨어지는 동작이나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이 적은 직업은 인공지능이나 로봇으로 대체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해사정인, 일반 의사, 관제사, 세무사, 기자, 변호사 등 대표적인 전문직으로 인정받는 직업군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인공지능 시대에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주로 감성, 창의성, 직관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즉 음악가, 화가, 작가 등은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과 기계의 가장 큰 차이는 감정과 창조성, 가치를 평가할 하는 잣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소설을 쓰는 인공지능, 작곡을 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했다고 하니 이런 전망도 반드시 맞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은 지성, 감성, 창의성 순서대로 인간의 영역을 서서히 잠식해 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절대로 인공지능에게 넘

겨줄 수 없는 마지막 영역이 있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스피, 신부 등 성직자 영역은 결코 인공지능이 넘볼 수 없는 곳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영성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종교행위는 지성과 훈련된 감성, 창의성으로 무장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침범할 수 없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설교하신 십이연기설, 삼법인, 사성제 등 불교의 핵심 개념들은 인간의 피조물로서 업력을 갖추지 못한 인공지능 기계가 결코 경험하거나 내재화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는 우주 창세 이래 역겹을 관통하는 윤회를 통해 업력을 갖춘 인간, 자신의 내면에 불성을 갖춘 인간만이 체험할 수 있는 영적 세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현대과학의 성과로 우주의 생성과 진화, 생명체의 탄생과 진화, 그 모든 사실들을 인식하고 그 이해체계를 확립한 인간 뇌의 작용도 많이 밝혀져 있지만 그 모든 작용을 가능케 하는 근본작용은 신비의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에 대한 얘기가 아니며 스스로 탄생해서 진화하는 우주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인공지능 시대가 머지 않았다고 해서 막연한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고유의 영역이 있음을 잊지 말고 더욱 더 정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보편적 진리는 평범함에서 나온다

본원스님 / 명상수행원



'진리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한 마디로 잘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일견 대체적인 인식개념으로서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다. '진리'란 어느 시대, 어떤 공간에서도 제한적이거나 물리적 충돌 없이 두루 통하고 적용된다. 그것은 마치 달이 낮을 비출 수 없으며, 해가 밤을 비출 수 없듯이 변함없는 불변의 항상하는 이치이다.

공부 잘해 특목고에 다니며 명문대에 들어가서 A학점만 받는 머리나 좋은 학생보다 성적은 보통이어도 옳고 그름을 바르게 아는 건실한 사상으로, 진리에 입각한 진실한 법의 실천 자각을 우위에 두어 마음에 새기는 학생이,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 참 행복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의 소지가 높다는 근거는 원인에 기초한 연기론적 진행과정 방식이 의미하는 상관관계에서다.

경망스러운 입으로써 함부로 깔보고 무시하여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것이 벌미

가 되어 내 마음에 상처로 돌아오고, 나로 하여금 타인이 고통받거나 흘리는 눈물은 곧 내가 살아가면서 갚아야 할 피눈물의 씨앗이 된다는 진실을 먼저 가르치고 배우는 학습풍토,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기 전에는 함부로 '교육의 정상화'를 입에 올리지 말아야 될 일이다. 무릇 몸으로서 하는 그 일이 바른 것인가 그른 것인가를 늘 살펴 알고, 입으로서 하는 그 말이 진실한가 부실한가를 알아차리며, 뜻으로써 생각하는 그 마음이 정직한가 거짓인가를 살펴 관찰하자.

남다른 재주와 능력보다 기본, 기본 질서

및 공익윤리, 준법정신에 투철하고, 이해관계만을 쫓기보다는 상식과 원칙이 통하고 순수한 정직과 한결같이 꾸준한 성실함이 인정받고 신뢰하는 통념적 인습을 배경으로 결과보다도 과정이 중시되며, 최고보다는 최선에 가치를 둠으로써, 약삭빠른 기회주의적 처세와 수완이 좋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차지가 되어버린 권리와 이윤 추구의 방식을 지양, 오직 맘 흘린 만큼 정직한 대가으로써 그 몫이 돌아가는 수평적 분배구조를 추구하며 함께 사는 사회제도적 공존에 기초한 우월이 아닌, 평범이 갖는 보편적 가치를 우위에 두면 우리 사회는 그 만큼 양질의 면에서 바람직한 체질개선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누구를 위하여 좋은 올리나

‘어느 사람이든지 그 자체로써 온전한 섬은 아닐지니, 모든 인간이란 대륙의 한 조각이며 또한 대양(大洋)의 한 부분이어라. 만일에 흙덩어리가 바닷물에 씻겨 내려가게 되면, 유럽 땅은 그 만큼 작아질 거며, 만일에 모래벌이 그렇게 되더라도 마찬가지며, 그대의 친구들이나, 그대 자신의 영지(領地)가 그렇게 되어도 마찬가지여라. 어느 누구의 죽음도 나를 감소시키나니, 나란 인류 속에 포함된 하나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누구를 위하여 좋은 올리나. ……: 이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지는 말지어라. 좋은 바로 그대를 위하여 올리기에.’

- 존 단 -

패망의 길

타락하여 패망하는 길로 떨어지는 것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원하건대 세존이시여
그 패망하는 길의 문은 어떤 것입니까

이기는 길은 알기가 쉽지만
패망의 길도 알기가 쉽다
법을 지키는 것이 이기는 길
법을 비방하는 것이 패망의 길이다.

나쁜 친구를 사랑하고 즐겨하며
좋은 친구를 멀리한다.
좋은 벗들에게 원한 맺으면
그것이야말로 패망의 문이다.

착하지 않은 이를 즐겨 만나고
착한 이를 도리어 미워한다.
악을 좋아하고 선을 싫어하는 것
그것을 패망의 문이라 한다.

되절이나 저울질 할 때 남을 속이면
그것을 패망의 문이라 한다.

장기 두고 바둑 두고 술을 즐기며
방탕한 생활로 여자에 집착하며
재물을 함부로 낭비하는 것
그것을 패망의 문이라 한다.

여자가 스스로 지키지 않고
남편 두고 남과 어울리거나
남자가 그 마음 방탕하여서
아내 두고 다른 여자와 어울리거나
그런 가정생활 꾸려 가는 것
모두 다 패망의 문이다.

언제나 잠을 즐겨 거기 빠지고
벗들과 어울려 놀기만 하고
게으르고 성내기 좋아하는 것
이것이 패망의 문이다.

찬구를 돈으로 사귀고
술과 음식에 빠져 절제가 없다.
과다한 소비로 돈을 물 쓰듯 하니
이것이 패망의 문이다.

맛있고 흡족한 남의 음식 받으며
자기는 스스로 재물을 아껴
남의 것 먹기도 갚지 않으면
이것이 패망의 문이다.

이러한 것들이 이 세상 패망의 길
나는 알고 보기에 말하노라

그것들은 험하고 두려워할 길
지혜로운 사람은 멀리 피한다.

〈잡아함 제1279경〉

근면·검소를 실천 수행 덕목으로 삼아
사원을 청정도량으로 가꾸어 후학들에게
행실의 지침서가 된 〈백장청규(百丈淸規)〉
를 제정한, 당(唐) 시대 선종을 크게 진작시
킨 백장(720~814) 스님의 유명한 일화로 전
해지는 이야기가 ‘백장야호(百丈野狐)’이다.

백장스님이 초하루와 보름날 법문할 때
면, 어김없이 어디서 사는지 알 수 없는 한
노인이 대중 틈에 섞여 법문을 듣고 가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이다. 법회를 마치고
도 돌아가지 않는 노인에게 스님이 말한다.

“거기 있는 이가 누구냐?”

노인이 답하길, “저는 과거 가섭불 때에
이 산에 있었사온데, 그때 어느 학인이 ‘수
행을 잘 하는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라고 묻기에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不落
因果)’고 대답했더니, 뒤에 오백생 동안 여
우의 몸을 받았습시다. 바라건대 스님께서
이제 저를 위하여 자비법문을 내리시어 여
우의 탈을 벗겨주소서” 라고 말했다.

이에 스님이, “예전 학인이 네게 물었던 것
처럼 내게 다시 묻거라” 하니 노인이 “수행을
잘 하는 사람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하고
물으니 “인과에 어둡지 않으니까(不昧因果)”
고 하였다.

백장스님의 이 한 마디에 노인이 지은 해묵은 업장이 녹아내리면서 깨달은 바, 무수히 절하며 “제가 스님의 자비 범문에 힘 입어 이제야 비로소 여우의 몸을 벗을 수 있게 되었으니, 어두운 밤이 되면 여우의 몸을 벗어 뒷산 노송 아래 둘 것인즉 날이 밝는 대로 부디 사원의 범도에 따라 다비로써 거두어 주소서” 하고는 홀연히 사라졌다.

다음날 스님이 대중들을 거느리고 뒷산 노송 아래에 가보았다. 거기엔 오래 묵은 붉은 색의 큰 여우 한 마리가 잠든 듯이 죽어 있었고, 그래서 불가의 전통 장례법도에 따라 화장으로 예를 치러주었다.

‘인과응보(因果應報) …’ 하면, 배웠다는 지식인일수록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머리로 헤아려 분석, 규명이 안되는 것은 비논리적이고 불합리하다며 <전설의 고향>에 등장하는 고전적 이야기쯤으로 여긴다. 참으로 이게 문제다. 첨단 IT 기술이 우주를 향하는 시대라며,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일은 한낱 옛날 이야기 정도로 치부해버린다.

‘진리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한 마디로 잘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일견 대체적인 인식개념으로서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다.

‘진리’란 어느 시대, 어떤 공간에서도 제한적이거나 물리적 충돌 없이 두루 통하고 적용된다. 그것은 마치 달이 낮을 비출

수 없으며, 해가 밤을 비출 수 없듯이 변함없는 불변의 항상하는 이치이다.

이처럼 시공(時空)을 초월한 보편타당한 지고의 가치다라는 필자의 생각과 말인 ‘진리’가 의미하는 뜻에 부합하지 않거나 그 어원이 가리키는 개요며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이 글을 읽는 분들은 절대적 진리, ‘연기에 근거한 중추기능인 인과응보 사상과 믿음’은 고전류 따위가 아니라 이것은 내가 현재 온 몸으로서 경험하는 보편타당한 평등법으로, 바로 이 순간 내가 하는 생각이며 행위 속에 인과 연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상응하는 과도 있고 과의 보도 함께 아우르는 전체 현상으로서 그 모양을 나타내는 모습의 형상이 곧 ‘나’라고 하는 개체적 존재의 실상인 실체라고 함에 거부감 없이 동의하리라는 믿음의 전제 하에, 연기법을 단서로 한 ‘인과응보’ 추이 과정은 고전적 과거형도 아니며 추상적 미래형도 아닌, 언제까지나 현재진행형일 뿐인 진실에 공감할 것이다.



의문 경지 끝에서 ‘생명력’ 처방받다

김호석 화백



◀ 먹(墨), 193×95cm, 종이에 수묵, 2012.
생명은 깊은 원리이다. 주와 객은 부정
과 부정을 통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간
다. 모순과 역설이다.

편집자주

현대불교에 연재 중인 김호석 화백의 '화폭 속의 선지식' 가운데 전강스님 기사를 전재합니다. 전강스님은 법왕사 주지 실상스님의 은사이신 원공당 정무 대종사의 스승으로 한국 현대 선불교의 대표적 선지식으로 추앙받는 스님입니다. 현대불교와 김호석 화백님의 허락을 받아 수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니 불자님들의 많은 열독 바랍니다.

창작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도구와 공간에 대한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그림 도구에 대한 자세는 자신이 어떻게 예술을 생각하는지의 여부와 관련이 깊다. 작품을 하는 모든 재료는 창작자 자신이 몸과 생각을 씻고 관리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일차적 재료인 먹을 가는 벼루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선비들이 거론한 벼루에 대한 글들이다.

“먼지를 털고 벼루를 씻으며, 향을 사르고 차를 끓이고, 화병에 꽃을 꽂고 주련을 걸어 올리니, 알마다 몸소 하기에 힘들지가 않다.”

“비록 글씨는 잘 쓰지 못하더라도 붓과 벼루만큼은 깨끗하지 않으면 안 된다.”

“먹이 켜켜이 앉은 벼루는 주인의 얼굴에 묻은 때다. …… 얼굴을 씻듯 벼루를 닦는다.”

“문인에게 있어 벼루는 미인에게 있어 거울과 같다. 일생 동안 곁에 두고서 가장 친히 지내는 물건인 까닭이다.”

나는 그림을 그리면서 벼루를 깨끗이 씻고

먹을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나는 스님을 그리면서 이 벼루의 검은 먹물 속에서 스님의 모습이 보였다.

스님의 하루는 법상에서 시작한다. 법문은 대부분 새벽에 이루어 졌다. 주제는 따로 정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스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를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펼쳤다. 스님의 화두는 ‘관치생모’이다. 널빤지와 같은 이에서 털이 난다는 뜻이다, 스님은 이 화두를 타파했다. 그래서 대선사의 칭호를 얻었다.

본래 관치생모는 “조사가 서쪽에서 온 까닭이 무엇입니까?”라는 물음에 “관치생모니라”고 답했다는 말에서 비롯된다. 애매모호하다. 깨침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화두를 내린 자와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인가? 깨달았다는 것을 어떻게 제3자가 알 수 있는가? 마음을 통해야만 알 수 있다면 결국 이심전심이 아니라면, 깨달은 경지를 범접하지 못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아성으로 자신을 숨기기에 급급한 장치인 것은 아닌가? 깨달음은 어떻게 증명하

는가의 문제였다.

나는 한때 이런 의문으로 번민한 적이 있다.

내가 학교를 막 가려는 참이었다. 어머니가 내 머리를 툭 친다. 그뿐이었다. 그리고 학교에 늦을까봐 서둘러 뛰어갔다. 쉬는 시간이었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데 불현 듯 어머니가 왜 내 머리를 쳤는지 생각이 났다. 아, 어머니께서 어제 저녁 자기 전에 콩나물시루에 물을 주라 했는데 깜박했구나. 그래서 머리를 쳤구나. 나는 화두에 대해 이렇게 이해했다.

어느 날 잘 아는 화가로부터 연락이 왔다. 개인전을 준비하는데 그림에 대해 조언을 해 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작품에 대해 한참 동안 느낌대로 설명을 했다. 작품은 열심히 한다고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야 한다. 그것이 생명력의 힘이다. 그런데 그의 작품에서는 살아 있는 감동이 느껴지지 않았다. 보통의 경우 마지막 한 수가 작품의 질을 결정하기도 한다. 그래서 고수를 찾아 가르침을 청하는 것이다.

조심스럽지만 그 한수는 땃힘과 풀림의 순간에 있다. 그 방식은 그림마다 다르고 사람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그는 알아듣지 못했다. 오히려 자기 주장에 급급했고 나를 설득시키려 했다. 나는 작업실을 나오면서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춥다냐?” 했다. 이 말은 단순히 날씨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말은 그 말뜻을 알아듣는 자만 알아듣는다.

이처럼 화두도 내리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 마음이 통해야만 된다. 두 사람이 마음이 통해야 뜻을 아는 것이다. 말은 이렇게 증명이 되기도 하지만 기실 깨달음이란 그것을 증명하기 굉장히 어렵다. 깨달음은 과학적인 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다고 증명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견해가 한 번 트인 사람은 눈치가 다르다. 영감으로 알 뿐이다. 나는 깨달음의 경지가 이럴 것이라 생각했다.

나는 공부할 때의 분위기가 생각났다. 궁극의 경지에 다다른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살아있는 에너지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 퍼졌다.

가르침이란 그것을 주는 사람의 에너지까지 받는 법이다. 에너지는 살아 있어야 한다. 그런데 죽어 있는 시체를 받았다면 어떻게呢? 화두가 죽은 것 아닌가?

‘판치생모’. 나는 이 화두를 들면서 송곳으로 뼈 속을 후벼 파듯 궁구해 나갔다. 어떻게 이빨에 털이 날까? 의문이 생겼다. 의문을 키워 나갔다. 그 의문이 선정이 되도록 계속 확장해 보았다. 그리고 자면서 까지



▲ 법(法), 193×95cm, 종이에 수묵, 2012.
사상이 높다는 것과 사상이 깊다는 것은 다르다. 스님의 법문은 언어의 표현을 넘어선다. 정신의 최고수는 소박하지만 결이 살아 있다.

의문 속에서 잤다. 만약에 오매일여의 경지라면 이런 순간이 아닌가 싶다. 의정에 들다 보면 깨달음의 인연이 올 것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전강 스님의 목소리가 들린 것은 그때였다. 스님은 내가 왜 찾아 왔으며 어떤 것을 갈구하는지 알았다. 그것을 알기에 거기에 맞는 처방을 주었다. 그 처방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화했다. 오늘 갈 때와 내일 갈 때가 다르듯 그 경지에 맞는 그대로의 처방을 내려 주었다. 그것은 분명 생명력이었다. 아! 이것이로구나! 무릎을 탁 치면서 일어서려는 순간 또 다른 의문의 경지에 갇힌 듯 흥미했다. 그러면서 또 다시 길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았다. 그 길은 혼자 가야 할 길이다. 세계의 진실을 노래하는 예술가는 선행적으로 고독하다 하는데 나 또한 예외가 아니다. 체득이란 이렇게 멀고도 먼 것인가?

나는 보통 오전에 작업을 시작하여 오후 3시에 마친다. 전강 스님을 그리면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스님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설명할 수 없지만 살아있는 에너지가 맞선 채 들어온다. 진정한 고수는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는다 하고 재주가 다 보이면 이미 재주가 아니라 했다. 진실은 무질서와 열정 속에 뒤섞여 있다.



수메다 부처님 이야기

영일스님 / 법왕사 법사

지난호(2016년 5월호, vol. 262)에서는 보살(수메다)이 나라다 부처님의 시대에 태어나서 수기를 받는 내용을 살펴보았다. 빠두뭇따라 부처님은 두발 가진 중생(인간) 중에서 최고이며, 대양처럼 흔들림이 없다. 빠두뭇따라 부처님은 설법에 능숙하여 세 번의 통찰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많은 중생이 고해의 바다를 건너게 한다. 그때 고타마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필라'라는 정부 관리였는데, 빠두뭇따라 부처님을 상수로 하는 상가에 음식과 천을 보시한다. 그러자 빠두뭇따라 부처님은 자필라에게 '미래에 고타마 부처가 될 것이라는 수기선언'을 하신다. 빠두뭇따라 부처님은 오랜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고해의 바다를 건너도록 이끈 후에 난다숲의 사원에서 반열반에 드신다.

우리 시대의 부처님인 고파마 석가모니 부처님이 최초로 붓다(Buddha)가 될 것을 결의한 때인 연등부처님(dipankara-Buddha)부터 시작하여 까싸빠 부처님(kassapa-Buddha)까지 총 24분의 부처님들로부터 붓다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받는다. 이번 호에서는 연등불에서부터 시작하여 11번째의 붓다인 수메다불(sumedha-buddha)에게 수기를 받는 내용을 불종성경(Buddha-vamsa)을 통해 보기로 한다.[불종성경(Buddha-vamsa)]_(CST4: KN-Bvm, ch.13, vs.1-31) 의역요약

1. 수메다 부처님 이야기_part 1

[vs. 1-3] 빠두뭇따라 부처님에 이어서 수메다(sumedha)라는 지도자가 있는데, 접근되기가 어려운 거대한 불과 같고, 모든 세상에서 최고의 성자이다. [그는] 밝은 눈을 가지고, [보름달 같이] 확한 얼굴을 하고, 큰 키, 똑바르고, 아름다우며, 모든 중생들의 이익을 바라고, 많은 이가 속박에서 벗어나게 한다. [수메다 부처님이] 완전하고,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는 수닷사나(sudassana) 도시에서 법륜을 굴린다.

[vs. 4-6] 그 [수메다 부처님]에게는 설법시에 세번의 통찰이 있다. 첫번째 통찰은 10만 꼬띠(약 1조)의 사람들로 구성된다. 다시 그 승자(수메다 부처님)가 꿈바간나(kumbha-

kanṇa)라는 야차(yakkha)를 길들일 때, 9만 꼬띠(9천억)의 중생들이 두번째의 통찰을 얻는다. 다시 그 한량없는 명성을 가진 이(수메다 부처님)가 사성제를 설명할 때 8만 꼬띠(8천억)의 중생들에게 세번째 통찰이 있게 된다.

[vs. 7-10] 위대한 성자인 수메다 부처님에게는 세개의 모임이 있는데, 번뇌(āsava)가 파괴되고, 흠이 없고, 마음이 고요한 그러한 아라한들로 구성되어 있다. [첫번째 모임] 승자(수메다 부처님)가 수닷사나 도시로 가자 번뇌(āsava)가 파괴된 1백 꼬띠(100억)의 [아라한] 비구들이 모인다. 다시 테와꾸따(devakūta)에서 비구들이 까티나의(kathina-cloth)를 펼칠 때(안거가 끝날 즈음)에 90꼬띠(90억)의 사람들로 구성된 두번째 모임이 있게 된다. 다시 십력의 수메다 부처님이 유행을 계속할 때, 80꼬띠(80억)의 사람들로 구성된 세 번째 모임이 있게 된다. *(아래 주석 1번 참조)

2. 수기

[vs. 11-12] 그때 나(고파마 부처님)는 유타라(uttara)라는 젊은이였는데, 나의 집에는 80꼬띠(80억)의 부가 축적되어 있었다. 나는 상가와 세상의 지도자(수메다 부처님)에게 모든 것을 보시하고, 귀의를 위해 그 [수메다 부처님]에게 다가가서 출가하고, 기쁨을

발견한다.

[vs. 13-14] 또한 그 [수메다] 부처님은 감사의 축원을 행한 후, 나(웃따라)에게 수기를 다음과 같이 하신다: “지금부터 무수한 겁(kappa)이 지난 후(3만겁 혹은 7만겁 후)에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힘찬 정진을 하고, 하기 어려운 고행을 하며, 앓싸타(assattha)나무 아래에서 완전히 깨닫고, 큰 명성을 얻게됨을 알게 될 것이다. 그의 어머니는 ‘마야(māyā)’라 하고, 아버지는 쏷도다나(suddhodana), 그리고 나는 고타마(gotama)가 될 것이다. 풀리따(kolita)와 우빠뎃싸(upatissa)가 그의 상수 비구 성문제자가 될 것이며, 아난다(ānanda)라는 시자가 그 승자(jina)를 시봉할 것이다. 케마(khemā)와 우빨라완나(uppalavannā)가 그의 상수 비구니 성문제자가 될 것이며, 그 세존이 깨달음을 얻은 나무는 앓싸타(assattha)라고 할 것이다. 짜따(citta)와 하탈라와까(hatthālavaka)가 그의 상수 재가 남성신자가 될 것이며, 난다마따(nandamātā)와 웃따라(uttarā)가 그의 상수 재가 여성신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고타마 부처님의 수명은 100년 정도가 될 것이다.”

비할 데 없는 위대한 성자(수메다 부처님)의 말을 듣고, 신과 인간들은 기뻐하면서 ‘이것이 불종자(buddha-bija)이다.’라고 생각한

다. 부처님의 선언이 계속되자, 일천세계의 신들은 박수를 치고, 웃으면서, 합장한 손으로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말하기를)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수호자(수메다 부처님)의 회상에서 실패한다면, 먼 미래에 이 (고따마 부처님)과 대면할 것이다. 마치 강을 건너고자 하는 사람들이 저쪽 강 언덕에 이르는 여울목에 이르지 못하자 좀더 낮은 쪽의 여울목을 타고 큰 강을 건너는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수메다)부처님의 말씀을 놓친다면 먼 미래에 저 (고따마) 부처님과 대면하여 (그의 가르침을) 알게 될 것이다.

*[아래 주석 2번 참조]

[vs. 15] 내가(웃따라 젊은이=미래의 고타마 부처님) 이 말을 들은 후에, 마음이 더욱더 기뻐지고, 10바라밀(pārami)을 충족하기 위한 결의를 더욱더 다진다.

[vs. 16-17] 나(웃따라)는 경과 율 그리고 구분교(navaṅga) 등의 스승의 가르침을 모두 철저히 배운 후 승자(수메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빛나게 한다. 앉거나, 서거나, 걷거나, 거기에서 부지런히 머물러 초월지를 완성한 후, 나는 브라흐마의 세계(brahma-loka)에 나아간다.

3. 수메다 부처님 이야기_part 2

[vs. 18-20] 위대한 성자인 수메다 부처님이

살던 도시의 이름은 수닷사나(sudassana)이고, 수닷따(sudatta)라는 왕족(khattiya)이며, 어머니는 수닷따(sudattā)이다. 그는 9천년 동안 집에서 머무는데, '수쨌다(sucanda), 깐짜나(kañcana), 시리밧다(sirivaddhā)'라는 세개의 뛰어난 궁전이 있다. 4만8천명의 아름답게 장식된 여인들이 있으며, 수마나(sumanā)라는 부인과 뿌냇바수(punabbasu)라는 아들이 있다.

[vs. 21-22] 인생의 네가지 특징적인 모습(cattāro nimittā)을 본 후에, 코끼리를 타고 출가한다. 승자(수메다 부처님)는 반달 동안 고행 정진을 한다. 세상의 지도자, 위대한 영웅인 수메다 부처님은 범천의 요청이 있자 수닷사나(sudassana)라는 훌륭한 숲에서 범륜을 굴린다.

[vs. 23-25] 위대한 성자인 수메다 부처님의 최고 상수 비구 성문제자의 이름은 사라나(sarana)와 샷바까마(sabbakāma)이고, 시자는 사가라(sāgara)이다. 최고 상수 비구니 성문제자의 이름은 라마(rāmā)와 수라마(surāmā)이다. 그 세존이 깨달은 나무는 마하니빠(māhanipa)라고 불린다. 으뜸가는 재가 남성신자는 우루웰라(uruvelā)와 야사바(yasavā)이고, 으뜸가는 재가여성신자는 야소다라(yasodharā)와 시리마(sirim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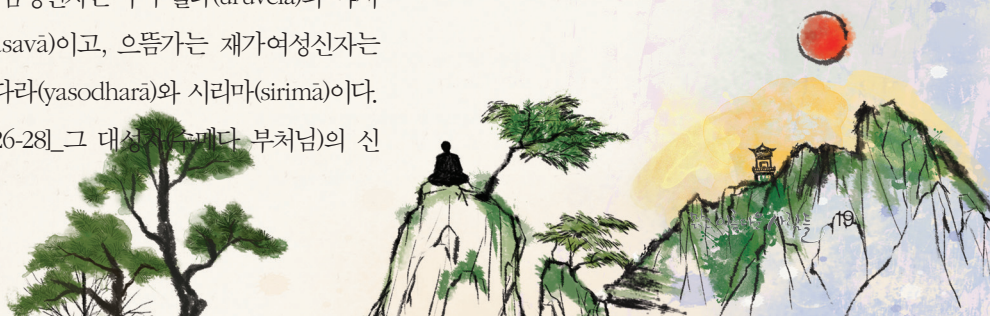
[vs. 26-28] 그 대신자 수메다 부처님의 신

장은 88라타나(49m)이고, 별 무리 속에 있는 달처럼 사방을 밝게 비춘다. 전륜성왕의 보석이 1요자나(11km)를 비추는 것처럼, 그의 [신체 빛의] 보물은 1요자나에 완전히 확산된다. 그 당시의 수명은 9만년인데, 그렇게 오래 사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고해의 바다를 건너게 한다.

[vs. 29-31] 이 [수메다 부처님의] 회상은 삼명(te-vijjā)과 육신통(chalabhiññā) 같은 그러한 큰 힘을 갖추고, 덕있는 아라한들로 넘쳐난다. 한량없는 명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 모두는 해탈하고, 탐욕에서 벗어났는데, 지혜의 세계를 보여준 후, 그들은 반열반에 든다. 뛰어난 승자인 수메다 부처님은 메다(medha)라는 숲속 사원에서 반열반에 든다. 그 수메다 부처님의 유해는 여러 지역에 퍼진다.(계속)

*주석1: 여기에 나오는 큰 숫자들에 대해서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단지 매우 '큰 수' 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주석2: 원문의 계승 13-14번에서는 수기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 요약되어있는데, 곧단나 부처님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vs 11-21)에 근거하여 생략된 부분을 보완한다.



동화사의 영산전과 천태각

전일주 / 문학박사



1. 영산전(靈山殿)의 편액과 주련

羅漢神通世所稀(나한신통세소희)
行藏現化任施爲(행장현화임시위)
松岩隱迹經千劫(송암은적경천겁)
生界潛形入四維(생계잠형입사유)

나한의 신통력은 세상에서 드무나니,
감추고 드러내심을 마음대로 하시네.
소나무 바위 아래 전각에 자취를 숨기고 천겁
을 지냈지만,
중생계에 모습을 감추시고 사방으로 드나드
시네.

영산전은 대웅전 동편 뒤 담장으로 둘러싸인 별채이다. 일명 나한전(羅漢殿) 또는 응진전(應眞殿)이라고도 한다. 법당 안에는 영산회상(靈山會上)의 모습을 재현하여 석조 석가삼존불을 중심으로 십육나한상이 좌우로 앉아 있다.

영산은 고대 중인도의 왕사성(王舍城) 동

북쪽에 있던 산 이름이다. 이곳에서 부처님이 범화경을 설하였으므로 ‘영산회상’이라는 말이 유래되었다. 영산회상에 모인 16인의 아라한(阿羅漢)을 모신 법당을 영산전이라 한다.

제2구의 감출 장(藏)자는 꾸밀 장(裝)자로 되어 있는데, 오자(誤字)이다. 행장(行藏)은 나아서 일을 행함과 들어가 숨는 일이며, 현화(現化)는 신불(神佛) 등이 형체를 바꾸어 세상에 나타남이다.

제4구의 사유(四維)는 사방의 네 방위인 건(乾)·곤(坤)·간(艮)·손(巽). 곧 서북·서남·동북·동남의 네 방위를 이른다.

글의 내용은 『석문의범(釋門儀範) 독성단청가영(獨聖壇請歌詠)』에서 인용하였다.

편액 글씨는 해사(海士) 김성근(金聲根 ; 1835 ~ 1919)이 71세 때 쓴 해서체이며, 주련 글씨는 묵선자(墨禪子) 박지명(朴志明)이 행초로 쓴 것이다.

2. 천태각(天台閣)의 편액과 주련



眞如法界 無他無自 (진여법계 무타무자)
要急相應 唯言不二 (요급상응 유언불이)

깨달은 뒤의 진여법계는 나와 남이 없다. 찰나에 상응하고자 하면 오직 불이만을 말할 뿐이다.

천태각은 영산전 바로 뒤에 위치해 있는 조그마한 전각이다. 천태각은 독성각이라고도 하는데, 나반존자(那般尊者)를 모신 곳이다. 나반존자는 옛날 중국 천태

산에서 혼자 도를 닦아 깨달은 분으로 ‘독성(獨聖)’이라고도 불린다. 머리카락이 희고 긴 눈썹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나한이다.

주련 글씨는 묵선자(墨禪子) 박지명(朴志明)이 예서체로 쓴 것이다.



천태각 앞에 금장실이란 당우가 있는데, 영봉(永峰)이란 분이 쓴 편액만 있고 주련은 없다.

중국 오대산과 문수신앙

정 엄 스님 / 정각사 주지(문학박사)
- 제31회 백고좌법회 89일차 법문



문수보살과 선재동자의 만남(입법계품)

문수보살께서 선재동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이미 보리심을 내었으니 온갖 지혜를 성취하려거든 선지식을 찾아서 그들의 가르침을 순종해야 하느니라. 여기서부터 남방으로 가면서 여러 선지식을 방문하고 보살행을 닦으라.”

선재동자는 문수보살에게 이렇게 발원하였다.

“생사(生死)는 성곽(城郭)이요, 높은 아만(我慢)은 장벽(障壁)이요, 모든 윤회중생

은 오히려 적(敵)이요, 애착에 물드는 것은 깊은 못입니다. 원만(圓滿)은 위없는 자비요, 청정한 지혜로 태양처럼 번뇌의 바다를 소멸하고자 합니다. 원하옵나니 해탈문을 열어 모든 전도망상(顛倒妄想)을 떨쳐버리게 하소서.”

그러자 문수보살은 “훌륭한 선지식(스승)을 구하고 다가가서 공경하고 일심으로 공양해서 어떻게 보살의 길을 닦고, 어떻게 보살의 실천을 완성하고, 실천을 청정하게 하고, 실천을 추구하고, 실천을 낳고, 바르게 이어가고, 보살의 경계기반을 충실히 발전시키고, 실천을 몸에 익히는가 하는 것을 물어야 한다” 고 하였다.

문수보살 지혜 오자진언(五字眞言)인 ‘아라바차나’를 지니면 팔만사천을 능가하는 큰 지혜를 구할 수 있다고 한다.

문수도량 오대산

중국 4대 불교 성지는 산서성의 오대산(五臺山) 문수보살 성지, 절강성의 보타산(普陀山)의 관음보살 성지, 사천성의 아미산(峨眉山)의 보현보살 성지, 안휘성의 구화산(九華山)의地藏보살 성지를 말한다. 그 가운데서도 오대산이 단연 불교 최고 성지로 꼽는다. 특히 문수보살의 발상지로 한국 불교와 인연이 깊어 수 많은 불자들이 참배한다. 각각의 성지마다 특색도 있고 수행체험을 통한 영험담도 많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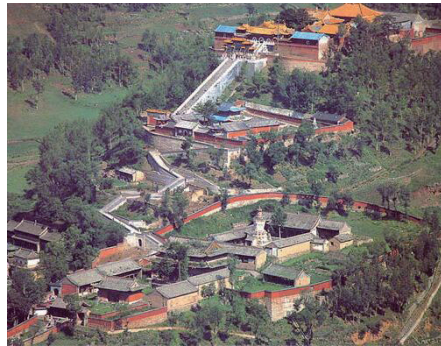
오대산이라는 산 이름은 다섯 개의 주요한 봉오리로 인해 생겼다. 동대 망해봉, 서대 괘월봉, 남대 금수봉, 북대 염두봉, 중대 취암봉에서 유래하였다. 전체적으로 연꽃모양을 한 높은 봉우리들이 겹겹으로 둘러 쌓여있어 잘 구분하기 어렵지만 쉽게 오봉을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봉우리에 절이 있고 탑이 있어서이라.

오대산의 각 봉우리마다 문수보살을 모신 사찰이 있다. 중대의 앞쪽에 대지(大智)문수, 뒤쪽에는 감로(甘露)문수를 중심으로 서대의 사자(獅子)문수, 남대의 지혜(智慧)문수, 중대의 유동(儒童)문수, 북대의 무구(無垢)문수, 동대의 총명(聰明)문수가 모셔져 있다.

중국에서 오대산은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이 오대산을 제압하면 중국 천하를 제압한다고 말할 정도



오대산 중대



문수성지 오대산 내 사찰촌 전경

이다. 남북조시대 북위 등이 이 오대산에서 발원하여 중원을 차지하였다. 이로써 오대산이 정치 군사의 요충지가 되었다.

북위시대에 효문제는 오대산을 참배하며 기도한 왕으로서 불심으로 윤강석굴을 몇 십 년에 걸쳐서 조성하여 국력을 과시하였다. 거기서 성공하여 낙양으로 진출해 중국을 통일한 후 다시 용문석굴을 조성하였다. 이처럼 오대산은 왕들이 참배하고 불심을 키운 산이다. 불교가 들어오기 전, 이 오대산은 신선사상의 중심지로서 중국인들에게 동경의 산이었고 기도하면 영험이 있는 산이었다.(계속)

불기 2560년 부처님오신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참뜻 되새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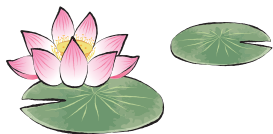
법왕사에서는 불기 256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지난 5월 14일(4월 초파일) 법왕사 대적광전에서 불자 5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여법하게 봉행하였습니다.

이날 법요식은 오전 10시 타종을 시작으로 육법공양, 봉축사, 범문, 발원문 낭독 등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축전을 보내와 스님이 낭독하였습니다.

이날 불자들은 법요식을 마치고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관불의식을 행하며 부처님오신날의 참뜻을 새기기도 하였습니다.



- ① 부처님오신날의 의미에 대해 범문하는 주지 실상스님
- ② 4층 대적광전을 가득 메운 5백여 법왕사 불자들
- ③ 법요식 행사 도중에 봉행하는 육법공양 의식





4



5



6



7



8



9



10



11

- ④ 찬탄경문을 낭송하는 정하혜 시인
- ⑤ 봉축식 '연비'를 낭송하는 이윤서 시인
- ⑥ 전 우담바라 합창단 단장 박경란 보살의 발원문 낭송
- ⑦ 부처님오신날 축하를 하는 전 거사림 회장 정안식 거사
- ⑧ 어린이 발원문을 낭독하는 박주연, 송민수
- ⑨ 찬불가를 부르는 우담바라합창단
- ⑩ 우담바라합창단 단장 황미선 보살의 축원문 낭송
- ⑪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관불의식

제47회 경로잔치 한마당

푸짐한 잔치상에 흥겨움도 가득

법왕사 제47회 경로잔치 한마당이 지난 5월 7일 복지관 전시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잔치에는 지역의 어르신 3백여분이 오셔서 푸짐한 잔치상을 대접받고 흥겨운 공연을 감상하였습니다. 이번 잔치는 지난해에 이어 한국전기공사협회 대구광역시회(회장 정안식)에서 주관하였으며 회원 및 가족, 직원 등 30여분이 봉사하였습니다.



- ① 경로잔치에 참석한 어르신들에게 인사하는 정안식 회장과 회원, 가족, 직원들
- ② 회원들이 준비한 푸짐한 잔치상을 어르신들에게 대접하고 있다.
- ③ 법왕사 주지 실상스님께서 어르신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 ④ 식사 후 각종 전통음악과 춤을 선보이는 공연무대
- ⑤ 흥겨운 공연 감상을 하고 있는 어르신들
- ⑥ 음식을 준비하고 서비스하는 회원들

법왕사 소식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봉행



법왕사에서는 불기 2560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지난 5월 14일(4월 초파일) 법왕사 대적광전에서 불자 5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여법하게 봉행하였습니다. 이날 법요식은 오전 10시 타종을 시작으로 육법공양, 봉축사, 법문, 발원문 낭독 등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특히 박근혜 대통령께서 축전을 보내와 스님이 낭독하였습니다. 이날 불자들은 법요식을 마치고 아가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관불의식을 행하며 부처님오신날의 참뜻을 새기기도 하였습니다.

제47회 법왕사 경로잔치 봉행



법왕사 제47회 경로잔치 한마당이 지난 5월 7일 복지관 전신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잔치에는 지역의 어르신 3백여 분이 오셔서 푸짐한 잔치상을 대접받고 흥겨운 공연을 감상하였습니다. 이번 잔치는 지난해에 이어 한국전기공사협회 대구광역시회(회장 정안식)에서 주관하였으며 회원 및 가족, 직원 등 30여분이 봉사하였습니다.

우담바라합창단, 달구벌 연등합창제 참가



법왕사 우담바라합창단은 지난 5월 6일 신천 둔치에서 열린 달구벌 연등합창제에 참가하여 찬불가 음성공양을 하였습니다. 불기 2560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열린 이날 합창제에는 대구지역 불교 합창단들이 대거 참석하였으며 시민 1천여명이 이날 공연을 관람하였습니다.

제31회 백고좌법회 보살계 수계법회

지난 2월 25일 입재한 제31회 백고좌법회 회향을 맞이하여 그동안 법회에 동참하신 불자들을 대상으로 보살계 및 불명 수계법회를 봉행합니다. 불명은 오계를 수계한 불자라면 누구나 수지해야 하는 법명이며, 보살계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48대 서원을 세운 대승 보살이라면 누구나 수지해야 하는 계입니다. 이번 수계법회는 전 해인사 율원장 종진스님께서 집전하실 예정이오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제31회 백고좌법회 영가천도 49재 막재

지난 4월 15일 입재한 제31회 백고좌법회 영가천도 49재 막재가 오는 6월 2일 법왕사 종합복지관 4층 대적광전에서 열립니다. 법회기간 중 선망부모, 조상, 수자령 영가에 대해 49재를 올리신 모든 불자들은 이날 막재에 동참하시어 극락왕생을 기원하시기 바랍니다.

제3차 만불 점안식 봉행



법왕사에서는 지난 5월 21일 대적광전에서 새로 모신 만불 30여기에 대해 점안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점안은 조각품인 불상을 예배의 대상으로 격상하는 불교의 의식으로 이날 새로 모신 만불에 대한 점안의식을 봉행하였습니다. 한편 법왕사에서는 계속 만불접수를 받고 있으니 개인적으로 원불을 모실 불자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산신단 108 계단길 완공



법왕사 본당 입구에서 산신단으로 가는 길에 108계단을 설치하여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단장하였습니다. 땀돌 108개로 이루어진 계단길은 가파른 길을 수월하게 오를 수 있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배치하여 운치도 더해주고 있습니다.

자비회 결성, 정기모임 갖기로

법왕사 보살들로 구성된 자비회가 결성되어 지난 5월

25일 가창 산팔기에서 회원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두 번째 모임을 갖고 앞으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낮 12시 30분에 정기모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사중의 각종 행사에 빠짐없이 나와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보살님들의 모임인 자비회는 앞으로 법왕사의 중추적인 실행단체가 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법왕사 거사림, 월 2회 정기법회 갖기로

법왕사 남성 불자들의 부부동반 실행단체인 거사림이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저녁 7시 정기모임을 갖고 법회를 봉행합니다. 최근 새로이 결성한 거사림은 현재 15명 내외의 회원이 활동 중이며 관심있는 거사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고 있습니다.

◎ 전국서각모임 회원들이 지난 5월 28일 토요일 법왕사 복지관 지하 전시설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 백중 영가 접수 중입니다.

◎ 2016년도 하반기 제32회 백고좌법회 준비 중입니다.

◎ 복지관 4층 대적광전 삼신불 조성은 현재 서울 금오불상에서 불상 제작 중이며 오는 동지에 봉안법회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복지관 4층 대적광전 오백 나한상 불단 불사 접수 중입니다.

◎ 또한 대적광전 영단, 신장단은 부산 조원 불교에서 조각 중이며 9월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새로 오신 법우님

이혜림 오리규 박종무 김우동 최석태 임예숙
임종만 박재두 이승역 김덕길 김승인 백귀옥
강봉수 장구찬 이재필 양지원 유호식 백운현
박동규 정태권 김이규 최주원 송성원 강신구
박종준 김광락 김원진 서인호 김동훈 유동훈
신덕수 서상군 권태석 구봉수

법왕사의 새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혜와 복덕이 넘치는 신행생활을 하시길 기원합니다.

사보도움 주신 분

이수희 150부 최용식 2만원

공양 올리신 분

◎ 방식 및 금전 은전공양 올리신 분

이동희 이현자 박이자 김정윤 노수정 장우성
문선재 김중환 황춘연 양영갑 심규암 이도학
김명숙 구실상화 사공순옥 제갈경화

◎ 떡공양 올리신 분

정국영 신동애 정우덕 양영갑 양문갑 이세정
양영갑(관음재일 김근태(백고좌 5재)

◎ 과일공양 올리신 분

김수자(백고좌 2재) 김수자(백고좌 3재)
김수자(백고좌 4재) 김수자(백고좌 5재)
권영숙(백고좌 5재) 양문갑

◎ 경로잔치 공양 올리신 분

이원석 김정숙 김판돈 김영숙 김수자 심보현
김기수 박종성 장미야 권재현 이희동 양혜진
최태희 강정선 조동선 양혜영 이승환 이재학
이영애 채차연 김민지 최유나 황순희 조준승
배해동 심규암 홍유식 이길우 신장희 지장희

산신회 관음회 합창단 사공순옥 김대비심
성 윤

◎ 초파일 공양 올리신 분

신지원 차운재 김순태 김유리 심규암 최운재
장관덕 김근태 이승역 고연숙 강대철 오재대
김기수 광희숙 이세정 정효교 허상현 장관덕
신현채 장우성 이상훈 금태운 권춘자 박종성
박경훈 손근자 오진환 이정화 양문갑 양영갑
권상태 이승재 안시우 조병호 김상한 민병철
박종성 이영석 신장희 관음회 지장회 산신회
합창단 손대호 심재용 심영호 김수자 정춘화
배해동 신명균 제갈옥 공나원 김상희 성 윤
차민교 홍새미 세광하이테크 권마하연
사공순옥

◎ 초파일 꽃공양 올리신 분

권영숙 김은주 김정숙 정영미 황춘연 권귀정
손혁준 김수근 이승환 이승민 김성호 권혁준
허정현 사공순옥 여보리자

◎ 공양미 올리신 분

최운재 심보현 오시연 정영옥 김주현 이승환
신현옥 성 윤

◎ 물품보시 올리신 분

김순태(버섯) 노수정(버섯) 김현주(공양간선반)
신창희(공양간선반) 양문갑(화장지)
강유미(빨래건조기, 식기소독기) 김중환(방충망)

◎ 승복보시 올리신 분

조광호 이영석

◎ 목탁보시 올리신 분

이현자 박이자 전숙환 김영애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주신 공양물 감사드립니다.

불사 올리신 분

◎ 단청등 올리신 분

정원전설 금강철강 안전정밀 영남출판사
제일능이백속 와우노래방 저스트사운드 이윤주
주상준 이재왕 케이엔케이텍메디컬 하희물류
조은불교 불교불상조각 금오불상

◎ 사업등(1) 올리신 분

삼성고속 부광오토바이 관음회 신장회 지장회
지성산업 합창단 권오국 산신회 거사림회
원공회사 권중훈 세림산업(주) 최용석 (주)썬엠

◎ 사업등(2) 올리신 분

김우경 김판돈 조철제 서만교 주호영 연기회
운불련호출택시 이동희(대구시의장) 금건수
권영진(대구시장) 장어와미꾸라지 동산섬유

◎ 초파일등 올리신분

신웅균 박계월 신현욱 신현섭 채분이 우종원
김만준 이수희 한순복 이현우 신종수 전병열
김상한 허상현 이원석 조현준 이수경 배용호
배일한 김진구 신민호 안준영 김종열 장기면

◎ 본당등 올리신 분

최태희 이재복 이은숙 이진욱 남기덕 이동재
이동주 최재훈 여희용 전충훈 정동욱 박순남
양문갑 양영갑 김봉조 이정관 김철원 이재학
권택훈 권순예 임예숙 임종만 이동학 유판선
최석돌 권기욱 김정순 김민우 정시영 전태영
차태원 정진석 조영준 김지택 김주택 김희택
서병삼 전태영 김장철 김용래 이재운

◎ 일년등 올리신 분

361 박민식 362 조철희 363 변동윤 364 양창호
365 홍기수 366 강대철 367 정인철 368 권순예

369 정창근 370 조임주 371 김진웅 372 이순일
373 차운재 374 양창구 375 박종환 376 하창호
377 이혜림 378 김대호 380 박동숙 381 고재일
382 김종갑 383 제갈옥 384 박종화 385 박종경
386 박종무 387 장찬규 388 박길용 389 박의창
390 권영도 391 김영식 392 김수근 393 박정목
394 손정규 395 홍경호 396 조영숙 397 박병윤
399 도호천 400 이돈식 401 강경석 402 유명만
403 손말두 404 박재용 405 배한업 406 김순근
407 김우동 408 임재오 409 김종도 410 박순영
411 정영자 412 이종규 413 최석태 414 김갑진
415 홍순영 416 황치구 417 김일선 418 김옥란
419 박철용 420 박봉희 421 김형길 422 박정락
423 권계화 424 정동영 425 이연이 426 이상혁
427 이정규 428 고태준 429 김태현 430 전성식
431 김병대 432 이병근 433 정환록 434 신용홍
435 권순경 436 우길원 437 주순옥 438 이상봉
439 채종달 440 조옥식 441 류호진 442 김인수
443 이용웅 445 장철영 446 최중수 447 권재호
448 허영철 449 이덕순 450 박재두 451 황금순
452 이국진 453 이문진 454 김중환 455 이종란
456 불화반 457 동영숙 유치원 원생 일동
458 매망원 장애인 원생 일동 459 이태희
460 이재봉 461 정경조 462 김덕길 463 김용철
464 박희성 465 박희성 466 김승인 467 최규철
468 김종구 469 김추석 470 하대성화
471 김오현 472 백귀옥 473 장구찬 474 강봉수
475 김종선 476 김명숙 477 임상천 478 서정옥
479 김호택 480 김재석 481 김수덕 482 장관덕
483 이연옥 484 김영태 485 이종석 486 최병남
487 이종환 488 이순자 489 김유창 490 시미즈
491 신석봉 492 이원하 493 강동화 494 김성균
495 이재필 496 양복임 497 양지원 498 박성수
499 서창욱 500 도종신 501 유호식 502 권치호
503 김기현 504 차미희 505 권숙자 506 김철환
507 우인환 508 박재민 509 류태곤 510 이정례

511 허상훈 512 최옥분 513 백운현 514 이병덕
515 도원우 516 차은길 517 송준영 518 심연선
519 백창기 520 최재승 521 장삼술 522 이한국
523 윤석관 524 김광희 525 양귀순 526 김 건
527 정상열 528 김기동 529 조희곤 530 조희곤
531 안명흠 532 권달오 533 김태환 534 김영곤
535 김용구 536 최수길 537 박지원 538 이재희
539 박재영 540 진영덕 541 이영호 542 김석업
543 화신기획인쇄 544 한국메디팜
545 농협회사법인(주)좋은하루
546 산업전기 안전관리 (주)전기점검
547 바로본병원 548 김이규 549 청구워트퓨어
550 대상헬스케어 551 남문유통
552 중앙법인 세무회계팀
553 세명엔지니어링(소방업체) 554 정우통상
555 동양신성특수가스택 556 전자관OA서비스
557 김금순 558 이병훈 559 산동희
560 송성원 561 차순자 562 고광철 563 이영자
564 이재원 565 이원택 566 박기운 567 신돈식
568 김기억 569 서석찬 570 서상영 571 이덕호
572 박동규 573 우병철 574 문춘읍 575 권상구
576 권봉환 577 장익수 578 정태권 579 석응영
580 권태점 581 이정순 582 이원석 583 최정자
584 권철용 585 이윤수 586 최주원 587 박일수
588 김교일 589 이종화 590 강대웅 591 강신규
592 김평국 593 김세승 594 민영옥 595 박성규
596 최남석 597 박연향 598 김동효 599 김진호
600 박근수 601 오한미 602 박순중 603 이철재
604 조영덕 605 이경자 606 서승배 607 김철수
608 조국진 609 유옥재 610 차태일 611 차민교
612 홍성수 613 배석록 614 장미안 615 도창종
616 김대영 617 홍헌오 618 배경호 619 배한소
620 김관숙 621 이상철 622 묘정인 623 양덕균
624 양수한 625 신만재 626 서길수 628 김광락
629 구석태 630 김순옥 631 심영호 632 박인두
633 나영삼 634 강성진 635 이광수 636 송태암

637 추재천 638 김광수 639 김두섭 640 이권희
641 김토열 642 김영채 643 전효환 644 이우호
645 류제원 646 송형석 647 권동오 648 이경섭
649 송화준 650 김원진 651 서인호 652 전태호
653 송용훈 654 김상옥 655 엄세비 656 김치희
657 조전근 658 박천득 659 이태석 660 배병호
661 이종대 662 김영수 663 박인철 664 구자본
665 이상태 666 이형조 667 이정엽 668 김보옥
669 박해일 670 박철규 671 박춘복 672 이범영
673 이종표 674 장용기 675 이정숙 676 조태근
677 이영환 678 손양덕 679 서달문 680 김옥란
681 구갑순 682 권병기 683 김호동 684 최용식
685 장락상 686 김점순 687 김말순 688 박호황
689 문동식 690 최재호 691 석종세 692 김월봉
693 엄영모 694 최윤석 695 이철수 696 김광렬
697 안중옥 698 장호준 699 권병인 700 이동수
701 광영우 702 진보학우회 703 남북통일국민연합
704 박정명 705 김정현 706 권오중 707 권봉관
708 김재엽 709 채송희 710 나재준 711 구영희
712 손영준 713 김성곤 714 김동훈 715 조기수
716 서재우 717 조수원 718 황용순 719 김순득
720 채금연 721 채종호 722 윤종수 723 반재태
724 장청재 725 이재후 726 구본석 727 이갑진
728 권기범 729 유기상 730 박천득 731 김정석
732 김창원 733 이규방 734 김명수 735 양현형
736 김원우 737 이재현 738 신사훈 739 송정옥
740 이호규 741 장현목 742 정의화 743 조정호
744 김창진 745 박태조 746 장두욱 747 황효영
748 김경열 749 김진양 750 허전명 751 조규철
752 김양수 753 이일선 754 김상일 755 정종인
756 김상수 757 김용관 758 김민현 759 남상호
760 이성송 761 김동찬 762 유동훈 763 유동훈
764 조만수 765 이재우 766 류태수 767 방인호
768 박정규 769 장기면 770 구봉수 771 김영목
772 설동구 773 이치우 774 석대웅 775 허판대
776 권태석 777 구봉수 778 서상근 779 신용술

780 문재용 781 나충홍 782 신덕수 783 홍종흠
784 박현영 785 김진우 786 홍준형 787 권태은
788 김기선 789 임일금 790 김기선 791 김우영
792 김우영 793 김찬수 794 변성섭 795 심동섭
796 정태진 797 정순교

◎ 영가등 올린 분(복위자)

권오국 류윤만 김이규 김영홍 김상한 이강문
오세철 심보현 이임숙 김창득 권영숙 정하삼
장철영 박말순 이경상 김옥희 김상철 김수자
정재만 이점례 권혁일 현무훈 이상호 황금석
류숙하 박춘희 안해옥 안해은 신현국 서규선
김재석 권위량 김영웅 김정윤 김재식 문수명
함지훈 이동희 양문갑 황춘연 권귀정 박봉희
강석태 조선환 서정수 박종욱 조혜인 김용균
권소표 심규암 정연국 정연욱 김명우 주정순
박찬용 이재학 지세환 김순태 황래환 조철희
강대철 고재일 최재훈 김영애 이창수 이광호
최용식 최영희 최윤주 정국자 홍순영 오시연
김상수 이지송 한승욱 박해진 백월순 김경숙
박재완 박동근 김종태 장정수 이광순 공세표
신용준 이현국 서상훈 박은정 김민정 권기정
손준곤 조복래 김무건 안준영 박근호 김정자
신진호 이한찬 권봉환 장영우 권경호 이현우
김숙향 전춘환 장삼술 전숙환 신정순 이세정
장봉수 양수한 김수용 김애경 임정욱 우성국
송용훈 배병호 김분옥 추화선 김동현 박정명
유기상 김재엽 강분자 김기선 김우영 최재섭
한창수 심동섭 서법영 정 돈 김대비심
비구니자윤

◎ 산신각 108계단 불사하신 분

안준영 이주애 안효창 박주연 박준혁 서수민
이희송 김판돈 정용진 김정숙 최재훈 이은미
최윤재 이승민 이승환 이종환 김은주 이기원
이기준 김금강심

◎ 탑전 연등 올린신 분 권지현

◎ 아미타불 연등 올린신 분 권도형 신구자 권무길

◎ 꽃등 올린신 분

86 김영국 87 김수만 88 오라규 89 환희수
90 정우득 91 김상원 92 김상원 93 박영근
94 김승농 95 이창식 96 나기태 97 김정태
98 권영진 99 박동근 100 이인수 101 이동근
102 홍병욱 103 조기석 104 김상조 105 박종기
106 성병행 107 이수동 108 김주식 109 전정광
110 허노출 111 신종대 112 신격기 113 신종백
114 이바라밀 115 박임순 116 손정술 117 손정식
118 이이근 119 진정애 120 남정오 121 백장자
122 박근범 123 권태신 124 조병호 125 김기춘
126 안시우 127 김동수 128 구민자 129 장만기
130 이찬현 131 오경화 132 손태익 133 김원배
134 김천엽 135 김팔경 136 고재호 137 이승민

◎ 대적광전 인등 불사하신 분

94 이경자 95 김상수 96 김경택 97 김기석
98 박세훈 99 정한욱 100 채보이 101 송현욱
102 박남희 103 김근형 104 이동준 105 박경민
106 박정은 107 김혜은 108 김혜진 109 이재훈
110 김종목 111 박경란 112 김동훈

◎ 만불전 1인1원불 봉안하신 분

3516 이이정부 3517 이이갑영 3518 조철희
3519 이창수 3520 강정현 3521 이형렬

◎ 부처님 복장물 불사하신 분

선강학근 선강학성 선강무완 선김호이 선황순희
선김명암 선김은이 선김재은 선김서은 선김남이
선이명욱 선강호영 선강씨 일체

◎ 오백나한상 불사하신 분

48 김주양 49 박종민 50 고연숙

◎ 한평불사 올리신 분

윤지현 1명 오광진 2명 권오삼 10명 전형진 2명
심수는 2명 이재왕 1명 김성훈 2명 박소영 1명
이승환

왕생극락하옵소서

- ◆ 亡이강영 영가의 초재가 5월 1일에 있었습니다.
- ◆ 亡배병국 영가의 기제사가 5월 2일에 있었습니다.
- ◆ 亡송재호 영가의 막재가 5월 6일에 있었습니다.
- ◆ 亡함영봉 영가의 기제사가 5월 11일에 있었습니다.
- ◆ 亡이철준 영가의 초재가 5월 12일에 있었습니다.

- ◆ 亡한은지 영가의 초재가 5월 13일에 있었습니다.
- ◆ 亡박영훈 영가의 기제사가 5월 15일에 있었습니다.
- ◆ 亡장판숙 영가의 막재가 5월 15일에 있었습니다.
- ◆ 亡이인화 영가의 기제사가 5월 16일에 있었습니다.
- ◆ 亡황용준 영가의 기제사가 5월 16일에 있었습니다.
- ◆ 亡오문환 영가의 기제사가 5월 20일에 있었습니다.
- ◆ 亡이화순 영가의 막재가 5월 20일에 있었습니다.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 ♥ 정안식 김인오 법우님의 장녀 영난 양의 결혼식이
5월 22일에 있었습니다.

법왕사 신행단체 법회 일정

단체명	일 시
신장기도	음력 초하루부터 삼일간
신장회	음력 10일
지장회	음력 18일
관음회	음력 24일
합창단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산사회	음력 16일
인등회	매월 보름
거사팀	둘째, 넷째 목요일 저녁 7시
자비회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낮 12시 30분
천일기도	음력 초하루, 보름 오후 2시

해오름 요양원 소식



낙상예방교육 실시

해오름요양원 어르신들과 함께 낙상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르신들께 낙상에 대한 지식과 위험성을 전달하는 교육으로써, 무엇보다 낙상 사고를 예방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왕사 주최 경로잔치 참여

법왕사에서 주최하는 경로잔치에 지역 내 어르신은 물론 요양원의 어르신들도 참여하셔서 준비된 공연도 보시고, 맛있는 음식도 드셨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흥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지요. 모처럼 지역 내 많은 어르신들과 어울리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린왕자봉사단 방문

연합 봉사단체인 어린왕자봉사단이 저희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조그만 손길이지만 어르신들과 함께 연등도 만들고 말벗도 하면서 어르신들께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드리고자 노력하였고, 어르신들도 그런 마음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셨습니다.



어르신 생신잔치

5월에는 어르신 세 분의 생신잔치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함께 생신 축하 노래를 부르면서, 맛있는 케이크와 간식을 나누어 먹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르신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카리나 공연

오카리나 공연팀에서 본 요양원의 어르신들을 위해 오카리나 연주와 노래로 흥겨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에 즐거워 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니 마음에 봄의 향기가 가득 찬 느낌입니다. 어르신들이 여기에서 아름다운 것만 보고 들으셨으면 하네요.



써포터즈 봉사단과 외출

5월 화창한 날 써포터즈 봉사단과 함께 어르신들이
장미공원으로 외출을 하였습니다. 진한 장미향이 풍
기는 공원에서 각양각색의 장미꽃들 사이로 산책을
하시면서 봄이 왔음을 만끽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들
이 외출하는 걸 아는지 꽃들도 더 활짝 핀 것 같네요.

| 개인 정기봉사자 | 김명희(놀이치료) 이재빈(웃음치료) 이영희(네일아트) 최주은(음악치료)

| 단체 정기봉사자 | 위드상담심리센터(미술심리치료) 오카리나공연(더오카리나)
써포터즈(아외나들이) 친한친구(놀이치료) 이미용(무궁화미용학원)
행복한교육이야기(놀이치료) 어린왕자(놀이치료) 그루터기(놀이치료)

해오름 게시판

2016 June Vol. 263호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04월)

◎ 수입내역

CMS(자동이체) 후원하신 분

강선옥 5만원	권순철 1만원	김미정 1만원
강선희 1만원	권영철 5천원	김민주 1만원
강소남 5천원	권오관 2만원	김봉숙 5천원
강심규 5천원	권오국 1만원	김성의 1만원
강영도 2만원	권춘자 3만원	김성자 1만원
강유미 1만원	금명섭 5천원	김수곤 5천원
고연숙 1만원	김경자 1만원	김수라 1만원
구정대 2만원	김경호 1만원	김수원 5천원
권계화 1만원	김기덕 2만원	김수윤 5천원
권명진 1만원	김기수 2만원	김수자 1만원
권수미 5천원	김대현 5천원	김순연 5천원
권숙자 1만원	김만기 5천원	김순태 1만원
권순득 1만원	김명옥 1만원	김영호 1만원
권순미 1만원	김미숙 1만원	김영희 5천원
권순영 1만원	김미자 1만원	김옥희 5천원

김외자 4만원	김진현 1만원	박동규 5천원
김외환 1만원	김진현 5천원	박성숙 5천원
김용태 1만원	김진현 5만원	박성용 5천원
김우영 1만원	김창안 1만원	박성은 5천원
김원형 3만원	김필남 1만원	박성찬 1만원
김유진 1만원	김향희 1만원	박성후 2만원
김은주 1만원	김형택 2만원	박수진 1만원
김의목 1만원	김혜자 5천원	박순남 5천원
김임태 5천원	남기웅 1만원	박순영 5천원
김정규 5천원	노귀자 5천원	박영균 1만원
김정숙 5천원	노수정 1만원	박원태 1만5천원
김정순 3만원	도화순 5천원	박인철 1만원
김정옥 2만원	류윤만 1만원	박정목 1만원
김정임 1만원	문정애 2만원	박종규 1만원
김정자 5천원	박경자 5천원	박치민 5천원
김종균 1만원	박귀분 1만원	박태숙 5천원
김진성 1만원	박남희 3만원	박희조 5천원
김진현 1만원	박대희 5천원	반통사 1만원

배소춘 5천원	엄홍식 2만원	이정희 5천원
배수현 2만원	오난옥 5천원	이종희 5천원
배하수 1만원	용마관음사 30원	이준우 5천원
사공관 2만원	우포정사 1만원	이채원 1만원
서정희 1만원	유경희 1만원	이하예진 5천원
서치경 1만원	유명옥 1만원	이현기 1만원
서호정 2만원	윤명숙 1만원	이현옥 1만원
석종순 1만원	윤윤근 1만원	이호동 5천원
성인자 1만원	윤정연 1만원	이호조 1만원
손복남 1만원	이경자 1만원	임상덕 1만원
손수경 1만원	이남희 1만원	임예숙 1만원
손수연 1만원	이명숙 1만원	장성규 5천원
송민경 1만원	이명희 1만원	장우성 5만원
송정숙 5천원	이병노 1만원	장재혁 5천원
시명숙 1만원	이병희 1만원	장지연 1만원
신구자 5천원	이복희 1만원	장찬규 5천원
신돈식 1만원	이상혁 1만원	장효주 5천원
신세호 1만원	이석규 5만원	정경석 2만원
신임선 5천원	이성자 1만원	정경숙 1만원
신진무 1만원	이성환 5천원	정명선 2만원
신진숙 1만원	이승미 1만원	정무시 1만원
신충호 5천원	이승환 5천원	정민경 1만원
신화식 1만원	이용옥 1만원	정병태 1만원
심규암 5천원	이유태 1만원	정순옥 5천원
심종순 5천원	이인순 5천원	정시영 1만원
안경순 1만원	이임숙 2만원	정연이 5천원
안명희 1만원	이임숙 20,000	정영자 1만원
안희선 1만원	이재봉 5,000	정옥선 1만원
양나영 5천원	이전희 5천원	정옥수 5천원
양봉훈 1만원	이점에 2만원	정인철 2만원
양혜진 1만원	이정연 5천원	정태교 5천원
엄세비 1만원	이정옥 1만원	정혜숙 1만원
여택동 5천원	이정화 1만원	정활수 3만원
염보라 1만원	이정희 3만원	조규인 1만원

조성자 5천원	채옥연 5천원	한희록 1만원
조영석 1만원	최경순 1만원	허유미 5천원
조영숙 5천원	최분규 1만원	현종열 1만원
조인성 5천원	최승임 1만원	홍유식 5천원
조일훈 1만원	최영희 1만원	황미선 2만원
조정자 5천원	최윤희 5천원	황준원 1만원
조정화 1만원	최정수 2만원	황지영 1만원
진봉희 1만원	최창숙 5천원	황학영 1만원
채수인 5천원	한규매 1만원	

총합계 : 2,375,000원

무통장으로 후원하신 분

이강복 3만원

◎ 이달의 신규 후원 신청자

서순련, 류국환, 박조림, 이옥자, 김숙희

◎ 지출내역

쌀 구입비	: 720,000원
CMS수수료	: 44,000원
부식 재료구입비	: 1,908,600원
간식 구입비	: 397,990원
생신잔치 케이크 구입	: 30,000원

총지출 : 3,100,590원

- ※ 해오름요양원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월 사보를 통해서 수입, 지출내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이며 남은 금액도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 ※ 해오름요양원에서는 후원자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CMS자동이체신청을 개설했습니다. 법원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오시면 신청서가 구비되어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나누는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후원물품 보내주신 분

한울식 어르신 보호자 : 야쿠르트 100개

한석근 어르신 보호자 : 야쿠르트 30개

이옥주 어르신 보호자 : 요플레 16개

최준가 어르신 보호자 : 박카스 1박스

백복순 어르신 보호자 : 검은콩국수 1박스,
박카스 1박스

김갑영 어르신 보호자 : 박카스 1박스

이봉선 어르신 보호자 : 사과 1박스, 방울토마토 2박
스, 떡 2박스, 오렌지 20개,
두유 1박스, 블루베리엑기스 1
박스, 빵 11개

이덕순 어르신 보호자 : 베지밀 1박스, 박카스 2박스, 마
가렛치즈 2통, 요구르트 2개

정일조 어르신 보호자 : 만두 1박스

정금화 어르신 보호자 : 피자 1판

김숙자 어르신 보호자 : 토마토 1박스, 비피더스 50개,
빵 50개

정판임 어르신 보호자 : 롤케이크 1통

박선진(씨포터즈) : 빵 30만원 상당

해오름 요양원 새가족

새로 입사하신 분

독고보겸 간호조무사

신규 입소 어르신

김숙자 어르신

자원봉사자 모집

◎ 활동일시

- 매주 1~2회 14시~15시(시간, 요일 조절 가능)

◎ 활동분야

- 미술활동, 음악활동, 종이조형, 아로마요법,
생활체육, 요가, 민요, 원예, 다도, 놀이활동 등

◎ 신청방법

- T. 053-766-5767 담당 사회복지사 서정희

- 방문접수 법왕사 1층 요양원 사무실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요양원 입소 안내

◎ 입소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으로
장기 요양 등급 1~5등급(시설급여) 판정을 받
은 어르신

◎ 입소시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이용료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저소득층) /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10%
- 비급여항목(식대, 간식비) 별도 부담

◎ 문의 전화: 053)766-5767 팩스: 053)766-5095

후원안내

금품후원 새마을금고 9002-1643-4050-9
예금주 해오름요양원

물품후원 기저귀, 의약품, 세제류, 의복, 주·부식
류, 생활용품 등

CMS자동이체 후원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
성하시면 됩니다. (1구좌 5,000원부터)

후원업체 소개



하회물류(주) www.hahoefood.com 에서는 매
달 어르신들의 부식에 필요한 신선한 두부를 후
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후원업체의 사랑과 나눔
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부처님 마을 건립 한가족 한평 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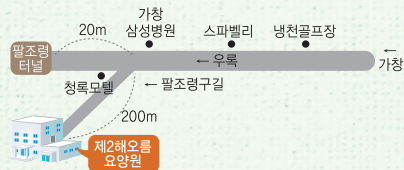
법왕사에서는 불교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정식 인가를 받은 해오름요양원을 개설, 편찮으신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왕사는 부처님 마을 건립을 위한 한가족 한평 불사를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마을은 현재 부지 4,500여평을 마련하였으며 조만간 개원법회를 봉행하고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 정신과 우리의 전통인 효행을 실천하는 방편인 요양원 건립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동참금 한 가족 100만원(2명 이상 새겨드림)

문의 종무소(766-3747, 9088)

동참계좌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농협 702010-51-106490 법왕사



백고좌 회향 기념 삼사순례법회 봉행

제31회 백고좌법회 회향 기념 삼사순례법회가 오는 6월 11일(토) 영주 부석사, 봉화 청량사와 축서사 순례로 봉행합니다. 이 세 사찰은 경북 북부지방에 자리한 유서 깊은 도량으로 불자들의 불심을 한층 더 깊게 해줄 것입니다. 출발은 당일 오전 8시 법왕사 주차장이며 회비는 4만원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 일 시 : 2016년 6월 11일(토)
- ▶ 출 발 : 당일 오전 8시 법왕사 주차장
- ▶ 회 비 : 4만원(공양은 사중에서 준비합니다)
- ▶ 코 스 : 영주 부석사 - 봉화 축서사 - 봉화 청량사



대적광전 삼신불 봉안불사 모연문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천백억화신 석가모니불)



법왕사에서는 복지관 4층 대적광전(大寂光殿) 장엄 공사를 진행 중인데 최근 웅장한 단계를 완공하였고 현재 불단을 조성하고 있으며 동시에 삼신불 봉안불사도 봉행하고 있습니다.

높이 9m에 달하는 웅장한 대적광전에 주석하실 삼신불 불사에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부처님 복장물 접수안내

오보(다섯가지 보배)	거부 장사가 되길 원하는 불자	각자지참
오곡(쌀, 보리, 대두, 조, 기장)	음식이 풍요롭기를 원하는 불자	2만원
오사(다섯가지 실)	좋은 인연을 가지길 원하는 불자	2만원
오향(다섯가지 향)	몸에서 법신, 법계의 향내가 나길 원하는 불자	2만원
오화(다섯가지 꽃)	아름답기를 원하는 불자	2만원
오금(다섯가지 비단)	좋은 옷이 생기길 원하는 불자	2만원
오경(다섯가지 거울)	심신이 깨끗하길 원하는 불자	2만원
오약(다섯가지 약)	번뇌를 멀하고, 건강하길 원하는 불자	2만원
오필(다섯가지 붓)	학문이 수승하길 원하는 불자	2만원
오병(다섯가지 병)	집안을 장식하길 원하는 불자	2만원
다라니	권력이나 진급을 원하는 불자	2만원
경면주사	삿된 귀신이 침노하지 않기를 원하는 불자	2만원



대한불교
조 계 종

법 왕 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or.kr